

광주 광엑스포주제관 브랜드 공연장으로

시, 추경 6억 추가 리모델링 등 상설공연 운영 지역 문화단체 기존 공연 시범 상연

광주시가 서구 상무시민공원 세계광엑스포주제관을 브랜드 상설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해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이용섭 광주시장이 브랜드 상설공연을 만들고, 이를 무대에 올릴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수백억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이는 브랜드 상설공연장 건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광주시가 지난 2010년 세계광엑스포 치러던 주제관을 활용해 브랜드 상설공연을 진행하게 됐다.

광주시는 저예산으로 브랜드 상설공연을 시작하면서 국비 지원 등을 통해 복구 운임동 문제회관 내 옛시립미술관을 리모델링해 상설공연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1일 광주시는 “상설공연 시범 운영을 위해 세계광엑스포주제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5억7800만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된 예산 중 4억원을 들여 기존의 세계광엑스포주제관의 조명과 무대, 음향장치 등을 손보고 1억7800만원을 들여 브랜드 상설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계광엑스포주제관은 200석 규모이며, 이곳에서 진행될 공연은 기존의 광주 지역 문화단체들의 공연을 시범적으로 상연하게 된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브랜드 상설공연장을 건설하고, 공연을 발족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공연장과 공연

을 활용해 브랜드 상설공연을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시는 장기적으로 현재 사진전시관으로 쓰고 있는 옛시립미술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브랜드 상설공연장으로 쓰는 방안도 함께 진행하기 위해 국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브랜드 상설공연은 이용섭 시장의 강한 의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 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프랑스 몰랑 루즈(Moulin Rouge)처럼 브랜드 공연과 공연장을 광주의 명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예약이자 문화수도를 자부하는 광주를 상징할 만한 브랜드 상설공연 하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른바 올해 9월부터 매주 특정 요일,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수준높은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 2011년 ‘자스민 광주’를 비롯해 일부 작품이 상설공연에 들어갔으나 단기간에 유아무야했다. 당시

광주시는 세계적인 공연예술 축제인 에든버러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10억원을 들여 광주 대표공연인 ‘자스민 광주’를 선보였다.

진도 씻김굿을 중심으로 시나위, 타악, 무용, 디지털 영상, 퍼포먼스를 가미한 이 공연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이집트, 시리아 등 중동지역 각국 민주화 희생자의 억울한 넋을 위로하는 무대로 꾸며졌다. 하지만 작품성이 미흡하다는 혹평 속에 결국 2년 만에 막을 내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서구 치평동 광엑스포 주제관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직원 오피스텔 허위 분양광고 연루 의혹

광주시 감사위 “지하철역 연결통로 만들어준다” 진상 조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직원이 “지하철 1호선과 인근 오피스텔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준다”는 협약을 오피스텔 건설사에게 써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광주시가 감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금남로 4구역 인근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한 이 같은 민원이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접수된 이 민원은 오피스텔 분양 광고에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분양광고는 금남로에 분양 예정인

A오피스텔 지하 출입구와 금남로4구역이 지하 통로로 직접 연결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원인은 지하 연결통로를 만들기 위해 도시철도공사와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가 협약을 맺었다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도 물었다.

지난해 8월 18일자로 광주도시철도공사와 해당 시행사와 맺어진 협약서란 이름의 문서도 외부에 공개됐다.

진상조사에 나선 시 감사위원회는 협약서 존재 사실을 확인하고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 감사위원회는 금남로4구역의 당시 역장이 협약서를 써 준 사실을 확인하고 협약서 작성 경위를 살피고 있다.

도시철도 업무의 중대 사안의 경우 협약이나 계약 작성 전 ‘팀장-처장-본부장-사장’에 이르는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금남로4구역장 명의로 협약서가 작성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금남로4구역 지하 연결통로는 허가가 나지도 않았고 건설 계획도 없는 상태이며 도시철도공사 단독으로 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기 분양’ 반발도 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18 진상규명조사위 구성 촉구 5·18단체 대표자 국회 방문

5·18단체 대표자들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국회를 방문한다.

2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 이사장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회장단이 오는 24일 국회를 방문한다. 5·18단체 대표자들은 오전 11시부터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위촉을 요구할 방침이다.

올해 3월 13일 제정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내달 14일 시행한다. 특별법은 계엄군 발표 체계, 행방불명자 암매장 장소 등 5·18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적인 진상규명위 설치를 규정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이용섭 시장 “버르장머리 발언 유감”

이용섭 광주시장이 21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6일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예고 없이 집단 방문한 시민모임과 대화 중에 정제되지 못한 표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을 두고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와 마찰을 빚던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시민모임)’ 관계자들은 지난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시민모임은 사전약속 없이 시장실이 있는 3층을 찾아 피켓시위를 벌이면서 시장실 진입을 시도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들과 면담 중이었던 이 시장은 갑자기 들이닥친 이들에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며 불평한 심기를 표현한 바 있다.

광주시시민단체협의회는 이 같은 이

시장의 발언을 문제삼고, 도시철도 2호선 관련 논의도 더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시장이 ‘버르장머리’ 발언에 유감을 표명한다든 지난 20일에는 최영대 시민권익위 위원장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 결정 시기를 미룰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향후 시민모임 측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문제와 관련 “지난 16년간 논의가 됐고 전임 시장 때 결정한 사안을 왜 다시 공론에 부치느냐는 비판이 있지만, 시민단체와 새로운 협의의 모델을 만들고 싶었다”며 “혁신은 과거의 낡은 관행을 바꿔나가는 과정이라 저항도 있지만, 시민이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인사청문회 대상 축소 시의회 반발

8곳서 4곳으로 줄일 듯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을 현재 8곳에서 4곳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 광주시의회 등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일 청문회 대상 공공기관 8곳을 4곳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협의하자는 뜻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하는 산하 공공기관은 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환경공단·김대중컨벤션센터·복지재단·문화재단·여성재단·신용보증재단 등 8곳이다. 광주 전남연구원도 전남도의회와 공동 청문회 대상이다.

광주시와 시의회의는 2015년 협약을 통해 이들 8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최근 공공기관장 교체 인사를 앞두고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을

줄이는데 의견을 모으고 시의회에 이를 전달했다.

광주시는 청문 대상기관이 타 시도보다 너무 많고 공공기관장 지원자들이 현재의 청문회 방식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아 지원을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17개 광역단체 중 11개 시·도가 인사청문회를 시행 중이고 대부분 5~6개 정도로 청문회 대상기관으로 하고 있어 광주시가 가장 많다.

이에 광주시는 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환경공단·김대중컨벤션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빠지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그동안 13차례의 인사청문회에서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끌어내는 등 순기능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청문회 축소의 명분이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22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노태강 차관 “광주수영대회 적극 지원 검토”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21일 오후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실에서 노 차관을 만나 2019년도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시장은 현행 총사업비는 FINA(국제수영연맹)의 요건(대회수준)에 맞는 대회 시설과 경기 운영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광주대회 참가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위상 제고와 남북 평화·화합을 위한 대회의 품격 제고를 위해 295억원을 추가 지원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에 노 차관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유치한 대회는 모두 성공했고, 광주세계수영대회 역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유치한 대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족한 사업비는 국가기금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두 눈에 청춘을, 신세계안과 노안수술

- 카탈리스 레이저 노안수술 2,000례 달성 (3D OCT와 레이저를 통한 수술의 정확도와 안정성, 성공률을 보장하는 신개념 최첨단 수술 시스템)
- 다초점 렌즈 삽입술로 노안 해결
- 다양한 다초점 렌즈 보유하여 눈에 가장 적합한 렌즈 삽입 (팬옵티스, 리사트리, 심포니, 테크니스, 파인비전 등)
- 각막 후면 난시 제거 수술이 가능한 ‘카시니’ 장비 도입 (GPS방식으로 측정·분석)
- 수술결과를 향상시키는 안구 네비게이션 ‘베리온’ 도입
- 1 DAY 노안수술 가능
- 백내장 진단 시 실손보험 적용 가능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에너지관리공단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농협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